

편모가족의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

Single Mother Family's Family Resources, Coping and Stress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 교수 김경신

박사과정 김오남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Kyeong-Shin Kim

Doctoral Course : Oh-Nam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were to find the general trends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s stress, family resources and coping, to estimate the correlation among variables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related variables, family resources influencing coping and stress. The data were analyzed from the 566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living in Kwang-ju.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Scores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s stress, family resources were lower than median. But scores of single mothers' coping were higher than median. Their problem-solving coping were higher than emotional coping.

2. Widowed single mothers' stress were related to family resources and emotional coping. Divorced single mothers' stress were related to emotional coping. Children's stress were related to emotional coping. Single mothers' stress, coping were related to stress of children.

3. Single mothers' coping were influenced by financial well-being, family strength I and family strength II. Children's coping were influenced by number of friend. Single mothers' stress were influenced by education, financial well-being. Children's stress were influenced by their mothers' education, friendship satisfaction and school

achievement satisfaction.

I. 서론

현대가족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라 편부모와 자녀들로만 구성된 편모가족은 해마다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편모가족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장기간의 별거, 유기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은 기혼여성인구의 17.3%와 기혼 남성인구의 2.9%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1995). 조이혼율도 1970년대초 0.4%, 1980년대초 0.8%, 그리고 1995년은 1.5%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1996). 최근에는 질병이외에도 교통사고와 산업화의 산물로 인한 중년남성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편모가족의 문제는 주요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여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하게 되어 부부간 경제적인 의존도가 약화되었고, 사회적, 법적, 도덕적으로 이혼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의 약화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와 이혼후 스트레스와 갈등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낭만적인 이혼의 신화가 작용하고 있어 이혼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김정옥, 1993).

이상과 같이 사망이나 이혼의 증가는 편모가족에서 편모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도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였으며 대부분의 가족이 사회관계망의 변화까지 경험하게 되어 가족내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갖게 되었다. 즉 편모들은 가사와 자녀양육역할 이외에 생계부양자역할까지 하도록 기대되어 어려움이 증가되었다. 편모의 자녀들은 부부재 이후에 오는 감정치리나 생활의 변화에 적응해야하는 정서적 문제, 증가된 책임량을 완수해야하는 역할문제, 친구와의 관계나 학업성적에 영향을 받는 학교생활의 적응문제 등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Hethering-

ton & Anderson, 1989; Wallerstein & Kelly, 1980). 따라서 다른 일반가족에 비해 편모와 그 자녀의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조희선, 1991; 현운강·이순덕, 1992; Gringlas & Weinraub, 1995; Weiss, 1979).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이 어떻게 가족자원을 사용하고 대처하는지를 살펴보면, 자원은 가족체계의 목표나 요구를 달성하는 수단이 되고 있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잠재력을 가진 요인으로서 가족내 긴장을 감소시키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가족체계자원들을 강화,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Deacon & Firebaugh, 1988; Lazarus & Folkman, 1984). 그런 의미에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 및 그들 관련성을 파악하여 가족의 건강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편모가족의 가족자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자원 중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편모의 경우 가족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주로 형제와 친부모로부터의 지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선영, 1991; 안명사, 1994; Spicer & Hampe, 1975; Anderson, 1984). 자녀의 경우에도 선생님, 친구, 형제자매, 모의 지지가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영희, 1995; 정현숙, 1993; Wallerstein, Corbin & Lewis, 1988; Fine, Mckenry, Brenda & Voydanoff, 1992). 이처럼 가족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나 외부로부터의 지지가 적절하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스트레스인자가 높지 않고 모자녀관계나 경제적 긴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영희, 1996; 박상희, 1993; Colletta, 1979).

그리고 편모가족의 대처를 보면 수동적, 소극적 대처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 더 많은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스트레스대처에 더 효율적이었다(박상희, 1993; 한경혜, 1993; Berman & Turk, 1981). 특히 편모와 자녀를 비교해 볼 때 편모가 더 많은 대처를 사용하고

(Compass & Williams, 1990),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편모원인이 이혼인 경우 다른 대처 방법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정현숙, 1993; 정현숙·서동인, 1996). 이처럼 편모자녀 모두 스트레스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다양한 대처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Amato, 1993; Hyman & Wog, 1982).

지금까지의 편모가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가족내 변인 중 가족의 질, 조화, 분위기 등 가족상호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편모가족의 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둘간의 인지차이를 파악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가족내 모자녀관계의 이해를 위해서는 가족단위의 분석이 요구되며,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 등의 통합적 관계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편모의 분석에 있어서도 홀로된 원인을 구분하여 사별과 이혼간 특성을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편모가족의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인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 편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인지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이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며 관련변인과 가족자원이 대처와 스트레스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편모가족의 생활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 1) 홀로된 원인별로 볼 때 편모와 자녀의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인지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홀로된 원인별로 볼 때 편모와 자녀의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인지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3) 편모와 자녀의 관련변인, 가족자원이 대처와 스트레스인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II. 선행연구고찰

1. 편모가족의 가족자원

일반가족과 편모가족을 비교 분석한 조희선(1991)

의 연구에서는 가족자원을 가족결속력, 사회적 지지, 사회경제적 지위로 보았는데 일반가족과 편모가족간의 가족자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화용·조병은(1996)은 편모가족의 가족자원을 심리적 자원(성역할태도, 통제감), 가족관계적 자원(애착, 자율성, 의존성), 사회적 자원(경제적, 여가/오락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 경제적 자원(소득)으로 구분하였는데 사회적 지원이 미약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강하고 수준 높은 가족자원을 언급하였다. 특히 홀로된 원인별로 보면 이혼한 편모의 경우 혈족과는 이혼전후 애정이 존재하나 시가와는 애정적 의무적 유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영희, 1996; 한경혜, 1993). 사별한 편모의 경우도 시댁의 지지는 낮은 편이며 친정에서 주로 정서적, 사교적, 서비스 도움이 높았고, 시댁에서는 경제적 도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명자, 1994). 이처럼 가족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주로 가족 특히 친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댁의 도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친척관계가 상당히 위축됨을 알 수 있다(Weinraub & Wolf, 1983). 가족자원의 내용을 보면, 사별한 경우가 이혼한 경우보다 재정적 원조가 높고 자녀양육 원조가 더 높으며(Jayakody, Chatters & Taylor, 1993), 자녀와의 정서적 지지의 교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opata, 1978; Marks, 1995).

기타 변인에 따른 가족자원의 특성을 보면 편모의 연령이 낮은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자녀수가 많지 않은 경우 가족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으며(McLanahan, 1983; O'Bryant, 1988),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자녀수가 적을 때 자원이 많다고 인지하였다(조희선, 1991; McLanahan & Booth, 1989).

편모자녀를 대상으로 가족자원의 영향을 살펴보면 정현숙·서동인(1996)은 가족자원을 심리적 자원, 가족관계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의 자원모두가 건강하고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실제 부모양육에 차이는 없으나 이혼 후 모자녀유대가 약화됨에 따라 정서적 지지나 부모양육 지지가 일반자녀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Gringlas & Weinraub, 1995). 반면 부모지지를 더 높게 보고한 결과(Zimmerman, Salem & Maton, 1995)도 있어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모와 의사소통이 잘되는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2. 편모가족의 대처

편모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Weinraub와 Wolf(1983)는 편모가족이 일반가족에 비해 대처에 더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혼한 편모의 경우 Berman과 Turk(1981)는 사회활동, 학습, 개인적 이해, 감정표현, 독립성 및 가정활동의 6개 대처방식을 추출했는데 사회활동, 감정표현, 독립성을 기르는 대처방식이 생활만족과 깊은 관계가 있었으며 한경혜(1993)의 연구에서는 위기사건에 적용하는데 대처전략들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높은 적응을 보고하였다. 반면, 일반가족과 편모가족을 비교한 조희선(1991)의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대처와 정서적 대처방안을 이용해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Clark, Siviski와 Weiner(1986)은 편모가 문제를 지적하고 원조를 구하는 대처방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박상희(1993)는 소극적 태도보다는 적극적 태도로 대처하고 친척의 지원, 친구이웃의 지원, 종교적 지원 순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고 하였다.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대처의 관계를 보면 편모의 연령이 높은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더 쉽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정서적 대처보다 문제해결적 대처를 이용하였다(조희선, 1991; Balkwell, 1981; Parke & Weiss, 1983).

편모자녀의 경우 문제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방식 중 종교적 도움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은 문제회피나 방관, 친구나 교사의 도움,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 순으로 나타났는데 문제회피나 방관하는 방식을 취할 때 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김영희, 1995). 반면 스스로 해결방식, 친척·가족의 도움, 종교, 친구의 도움 순으로 나타났는데(정현수, 1993; 정

현수·서동인, 1996) 특히 이혼자녀일 경우에 더욱 이러한 결과를 보였다. 즉 이혼이나 별거한 편모자녀의 경우 문제회피/방관적 대처를 이용하고 모의 교육수준이 중졸과 고졸인 집단에서 문제회피/방관적 대처를 더 사용하였다(김영희, 1995). 학년이 높은 경우 스스로 해결하려는 대책전략을 주로 사용하며, 종교가 있고 여학생인 경우 종교적 도움을 통한 대처와 친구·교사의 도움전략을 사용하였다(정현수, 1993; 김영희, 1995).

3. 편모가족의 스트레스

편모가족의 스트레스연구는 편모와 그 자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스트레스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환경적 변화와 부정적 반응사이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Hill(1971)의 ABC-X모델에 의하면 스트레스사건이 발생했을 때(A) 가족들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얼마나 소유했는지의 여부(B)에 따라, 또는 그 사건을 가족이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는가에 따라(C) 가족의 위기를 예방할 수도 있고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ill의 ABC-X이론에 근거하여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되 스트레스의 여러 개념 중 스트레스인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며 대처와 스트레스인지가 상호영향 관계에 있다고 보고 특히 관련변인 및 가족자원이 대처 및 스트레스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편모들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혼자 가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경제적 어려움과 배우자와의 이별로 인한 편모의 절망, 고독감 등의 어려움을 대부분의 연구들(공세권·조애저·허미영, 1995; 김선영, 1991; 김영희, 1996; 조희선, 1991; 박상희, 1993; Berman & Turk, 1981; Campass & Williams, 1990; Clark et al, 1986; McLanahan & Booth, 1989; Richards & Schmiede, 1993)에서 언급하고 있다.

자녀양육문제 역시 편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지적되

고 있는데 자녀양육의 패턴과 일상적 대화패턴의 파괴, 편모의 자녀에 대한 요구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으며(조희선, 1991; 한경혜, 1993; Webster-Stratton, 1989), 특히 우리 나라 편모들은 자녀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는데 구체적으로 자녀의 앞날에 대한 걱정, 자녀를 돌볼 시간부족 등이 제시되었다(한경혜, 1993).

또한 편모는 사회활동의 참여나 대인관계측면에서 주변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하게 되는 이혼 여성의 경우 더욱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희선, 1991; 한경혜, 1993; Katz & Pesach, 1985).

변인별 스트레스의 차이를 보면 홀로된 원인에 있어 사별보다는 이혼한 편모의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조희선, 1991), 편모의 연령이 낮은 경우,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가족문제 경험정도가 높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1993; Bahr, 1982; McLanahan, 1983).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부모역할에 따르는 스트레스나 역할갈등은 높지만 전체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희선, 1991; Campbell & Moen, 1992). 많은 가사노동시간, 자녀수가 많은 경우, 취학전 자녀나 사춘기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의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Umberson, 1989; White & Edwards, 1990). 또한 직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높은 직업만족도는 스트레스와 부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 Moen, 1992; McLanahan & Booth, 1989).

편모자녀의 경우 부부재 사실 자체가 자녀에게 충격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변화된 가족의 생활패턴과 모-자녀관계,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축적이 자녀에게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한다(Avshalom & Elder, 1988). 편모자녀의 스트레스 중에서는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래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정서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현은강·이순덕, 1992).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러한 사건을 맞이한 경우(Wallerstein et al., 1988), 부부재의 원인이 사망인 경우, 모의 교육수준

이 낮은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지 않고 적대적, 통제적인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김영희, 1995). 또한 여아보다 남아의 장래나 정서적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Gringlas & Weinraub, 1995). 특히 이혼자녀의 경우 학업성취가 낮고, 정서적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Deborah, 1991; Amato & Keith, 1991), 또한 학년이 높ی 올라갈수록, 성적이 하위권인 경우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장재송,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모와 그 자녀의 스트레스를 분석함에 있어 홀로된 원인(부부재 원인)을 중심으로 모의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자녀의 성적(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 지지원수 등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4. 편모가족의 가족지원, 대처와 스트레스

먼저 가족자원과 대처의 관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지지는 대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Bursik, 1991; Greene & Feld, 1989; Marks, 1995; Talyor & Roberts, 1995)와 지지가 부적절하고 지나치게 많은 양이 주어지는 경우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김선영, 1991; Amato & Patridge, 1987)가 제시되는데, 전자의 경우 주로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를 포함하고 사회적 지지가 편모와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경우 대처능력이 높게 나타났다(Tietjen, 1985). 후자의 경우 편모에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지가 주어지는 경우 대처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디스트레스를 더 유발시키는 결과(Arling, 1987; Beck, 1987)를 낳으며 비록 친척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접촉을 하나 이러한 친척으로부터 도움과 접촉은 편모의 대처와 관련이 없다고 한다(김선영, 1991; Amato & Patridge, 1987). 또한 가족의 자원 중 건강 또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데 중요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경우 대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신화용·조병은, 1996; 안명자, 1994; Hanson, 1986; Gringlas & Weinraub, 1995; Parker, 1994; White, 1994). 편모자녀의 경우 부부재이후 이웃, 친척들로부터 경제적 원

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부의 친가와 접촉이 많은 경우, 교사 및 친구의 협조가 많은 경우, 정서적, 학교생활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였다(김영희, 1995; John & Helen, 1985). 따라서 외부로부터 지지를 적절히 받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주어지는 경우 더 높은 대처능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가족자원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보면 극단적인 가족스트레스하의 가족은 높은 지지수준이 필요하고 지지의 불만족은 스트레스를 더욱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olletta, 1979). 심리적 자원이 적은 가족의 경우 스트레스인지는 더 높고 자녀관계, 경제적 긴장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한다(박상희, 1993). 김영희(1996)는 주위환경스트레스와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간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김선영(1991)은 시가의 애정적 지지, 시가의 정보적 지지를 받지 못할 때 편모의 긴장도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만성적인 생활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빈곤 편모여성에 대해서는 정서적 지지를 비롯한 사회적 지지가 가족자원으로서 제공되어야 하고 가족내 자원이 스트레스감소에 깊이 관련됨을 알 수 있다(김인숙, 1994). 편모자녀의 경우 학교, 선생님, 친구, 형제자매 등의 사회적 지지는 자녀에게 중요한 자원이 되며 친구나 교사의 지지(김영희, 1995), 모의 지지(정현숙, 1993), 조부의 지지(Hetherington & Anderson, 1989), 형제자매의 관계의 질(Wallerstein et al, 1988), 부모관계의 질(Fine et al, 1992) 등도 필요한 자원으로서 스트레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다.

대처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간의 부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는데(박상희, 1993; 한경혜, 1993), 편모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스트레스가 높은 만큼 많은 대처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Compass & Williams, 1990; Weinraub & Wolf, 1983). 편모자녀의 경우 Hyman & Wog(1982)는 부부재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의 등장이라고 간주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자녀의 인지 및 여기에 대처하여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대처능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Amato(1993)는 자녀적응을 문제와 대처차원의 개념으로

규정짓고 자녀가 위기적 사건에 직면하여 대처할 수 있는 자원에 의해 적응양상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자녀들의 스트레스와 대처(친구/교사의 도움, 종교의 도움, 스스로 해결, 문제회피/방관)를 볼 때 스트레스와 문제회피/방관 영역간에 역상관이 나타나 문제를 회피하거나 방관하는 경우 스트레스인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95; Compass & Williams, 1990). 따라서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보다 다양한 대처방식의 종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식에 따라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이 감소 내지는 제거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대처는 스트레스인지와 상호영향적인 체계라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방향성보다는 상호관계만을 중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인지의 일반적 경향과 이들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편모와 그 자녀의 관련변인(홀로된 원인, 모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자녀의 학교성적, 학교성적 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 지지위 수), 가족자원이 대처 및 스트레스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편모와 그 청소년자녀 283쌍 566명이다. 선정과정에서 편모가족의 다양한 이유 중 사별과 이혼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그 외의 대상은 제외시켰으며 배우자상실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고 안정된 편모가족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상실기간이 2년 이상인 대상만을 선정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은 광주광역시 5개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의 구성비가 고부 분포되도록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자녀에게 설문지를 자녀용과 어머니용을 주어 각각 개별적으로 응답토록 하였는데 특히 어머니용은 집에 가서 어머니

에게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을 끝낸 후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1996년 10월 21-26일까지 30쌍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일부 수정 보완한 설문지로 1996년 11월 18일-12월 4일까지 320쌍을 조사하여 312쌍이 회수되었고 내용기재가 완전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283쌍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편모 연령은 40대가 전체의 61.5%를 차지하였으며 교육 수준에서는 중졸과 고졸이 36.6%, 35.9%로 나타났고, 종교는 기독교가 31.0%, 불교가 27.1%, 천주교가 12.0%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 자영업·판매직이 29.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근무시간은 8시간이하가 31.8%, 12시간이상도 18.3%로 나타났다. 월평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수	구 분	N(%)	변 수	구 분	N(%)
모연령	30대	85(30.0)	편모가된 원인	사 별	196(69.3)
	40대	175(61.5)		이 혼	87(30.7)
	50대	24(8.5)			
모학력	국졸이하	57(20.1)	편모가된 기간	2-5	139(49.2)
	중 졸	104(36.6)		6-9	71(25.2)
	고 졸	102(35.9)		10-14	61(21.6)
	대졸이상	21(7.4)		15년이상	11(4.0)
모종교	기 독 교	88(31.0)	자녀 종교	기 독 교	121(42.6)
	천 주 교	34(12.0)		천 주 교	34(12.0)
	불 교	77(27.1)		불 교	41(14.4)
	유 교	1(0.4)		유 교	1(0.4)
	기 타	5(1.8)		기 타	3(1.1)
	없 음	79(27.8)		없 음	84(29.6)
모직업	단순노무직	44(15.5)	자녀 성별	남	126(44.4)
	사 무 직	25(8.8)		여	158(55.6)
	자영업/판매직	83(29.2)	자녀 연령	12-14	154(54.3)
	전문/경영관리	12(4.2)		15-17	130(45.7)
	서서비스직	61(21.5)			
주 부	59(20.8)				
하루평균 근무시간	3-8시간이하	73(31.8)	자녀수	1명	17(6.0)
	8-10시간	66(28.5)		2명	101(35.6)
	10-12시간	49(21.4)		3명	91(32.0)
	12시간이상	42(18.3)		4이상	75(26.4)
월평균 소득	30만이하	18(6.6)	주거 상태	자가	130(45.8)
	31-60만	103(38.0)		전세	119(41.9)
	61-100만	96(35.4)		월세	35(12.3)
	101-150만	(13.7)	가족 형태	핵가족	244(85.9)
	151-200만	10(3.7)		확대가족	40(14.1)
201만이상	7(2.6)				

균소득은 31-60만원이하가 38.0%, 61-100만원이 35.4%로 편모가족의 경제상태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편모가 된 기간은 2-5년이 49.2%를 나타내었고 6-9년은 25.2%, 10-14년은 21.6%를 각각 나타내었다. 편모가 된 원인은 사별이 69.3%, 이혼이 30.7%로 나타났다. 자녀 종교는 어머니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기독교가 42.6%를 차지하였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약간 더 많이 조사되었고, 자녀수는 2명이 35.6%, 3명이 32.0%, 4명이상 26.4%로 나타났다. 주거 상태는 자가보다 전세와 월세가 54.2%로 높게 나타났고, 가족형태는 대부분 85.9%로 핵가족 형태였다.

2. 조사도구

1) 관련변인

본 연구에서는 모연령, 모교육수준, 월평균소득, 혼자된 기간, 혼자된 이유,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친구수, 친정식구수, 시댁식구수, 직장동료수, 종교·사회단체·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수, 남자친구유무 등과 자녀성별, 자녀친구수, 친구관계만족도, 학교성적, 학교성적만족도 등이 분석 되었다.

2) 가족자원

가족자원척도는 McCubbin & Comeau(1987)의 FIRM(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하위영역은 재정적 복지(6문항), 가족의 건강도I(Family Strengths: 자존감과 의사소통-6항), 가족의 건강도II(Family Strengths: 숙달감과 성취-7문항), 사회적 지지 중 도구적 지지(5문항), 정서적 지지(6문항)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 30문항 점수범위는 30-150점이다.

3) 대처

대처방식의 척도는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1986), Billings & Moos(1984), 등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크게 두 영역인 정서적 대처와 문제해결적 대처로 나누었고 정서적 대처에는 투사, 운명주의, 정서표출, 환상적

회피, 지적부인, 자기책망, 사회적 비교, 진정요법, 위축, 기원, 회화, 우유부단, 지연, 방어, 신앙으로 구성하였고 문제해결적 대처에는 이성적 행동, 대안적 선택, 도움요청, 인내, 긍정적 사고, 단계적 해결, 대체, 유연성, 재충전, 자아적응, 적극적 소거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정서적 대처 12문항 총점수범위는 12-60점이고, 문제해결적 대처는 총 11문항 점수범위는 11-55점이며 전체대처 23문항 총점수범위는 23-115점이다.

4) 스트레스도구

스트레스의 도구는 McCubbin(1981)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과 Baruch & Barnett(1986)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되 스트레스인지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며 가족관계(6문항), 재정적 문제(5문항), 편모의 직업-가정갈등(자녀: 학교-가정갈등) 6문항), 내인관계(6문항), 건강 및 상실(4문항)을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총 27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 27문항 점수범위는 27-135점이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항들 간의 내적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를 측정한 Chronbach' α 를 산출하였는데 모자녀의 평균값으로 스트레스는 .856, 정서적 대처는 .753, 문제해결적 대처는 .799, 가족자원은 .852로 나타났다.

3. 자료의 분석

사용한 자료처리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Paired-t검증, 상관관계(Pearson's r),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통계처리는 SAS/PC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편모와 자녀의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및 차이

1) 편모와 자녀의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의 일

반직 경향

편모와 자녀의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표 3> <표 4>와 같다. 여기에서 가족자원은 재정적 문제, 물질적, 정서적 지지, 가족의 건강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자녀가 응답하기 곤란한 경우를 감안하여 편모에게만 응답케하였다.

편모의 가족자원은 평균 2.87로 중간(3.00)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각 하위영역을 볼 때 물질적 지지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가족건강 I(자존감과 의사소통), 재정적 복지, 정서적 지지, 가족건강 II(숙달감과 성취)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자원 중 외부로부터의 물질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편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친정부모나 형제, 다른 친척이 정보나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숙달감과 성취영역을 나타내는 가족건강 II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편모와 자녀의 생활변화에 인지와 성취지향적 성향이 낮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편모의 정서적 지지점수도 낮게 나타난 점으로 보아

편모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주변으로부터 심리적인 도움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별과 이혼집단간 하위영역간의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이혼집단보다도 사별집단의 가족자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혼한 편부모가족은 이혼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빈곤, 이혼전의 가족갈등과 문제, 부모자녀결속력이 낮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결과(Amato, 1987)와 비교해 볼 때 이혼이라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생활환경 조건이 편모로 하여금 가족자원을 낮게 인지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편모의 전체대처는 평균 3.19로 중간(3.00)을 약간 상회하는 대처를 보이고 있으며 문제해결적 대처가 정서적 대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별과 이혼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혼집단보다는 사별집단에서 더 높은 문제해결적 대처를 나타내었다. 이는 앞서 가족자원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혼이라는 요인이 대처에도 비효율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게 한다.

<표 2> 편모의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모변인	사별(N=196)	이혼(N=87)	t	전체(N=283)
	M(SD)	M(SD)		M(SD)
재정적 복지	2.73(.77)	2.49(.78)	2.41*	2.65(.78)
가족건강 I	3.16(.52)	2.95(.54)	3.07**	3.09(.53)
가족건강 II	2.41(.74)	2.19(.74)	2.29*	2.35(.75)
물질적 지지	3.57(.68)	3.35(.66)	2.59**	3.50(.68)
정서적 지지	2.68(.70)	2.40(.79)	2.99**	2.50(.74)
전체 가족자원	2.94(.41)	2.71(.47)	4.18***	2.87(.44)
정서적 대처	2.97(.48)	2.99(.61)	- .23	2.98(.52)
문제해결적대처	3.49(.58)	3.26(.69)	2.79**	3.42(.62)
전체 대처	3.22(.42)	3.12(.44)	1.84	3.19(.43)
가족관계	3.00(.73)	3.04(.67)	- .37	3.01(.71)
경제문제	3.29(.84)	3.42(.81)	- .12	3.33(.83)
직업-가정갈등	2.86(.71)	2.93(.72)	- .74	2.88(.71)
대인관계	2.36(.79)	2.36(.80)	.07	2.36(.79)
건강 및 상실	2.81(.98)	2.66(.88)	1.21	2.76(.95)
전체 스트레스	2.85(.57)	2.88(.56)	- .32	2.86(.57)

* p < .05 ** p < .01 *** p < .001

〈표 3〉 편모자녀의 스트레스, 대처의 일반적 경향

자녀변인	사별(N=196)	이혼(N=87)	t	전체(N=283)
	M(SD)	M(SD)		M(SD)
정서적 대처	2.87(.46)	2.96(.47)	-1.56	2.90(.46)
문제해결적대처	3.13(.49)	3.02(.55)	1.65	3.09(.51)
전체 대처	2.99(.34)	2.99(.32)	.08	2.99(.33)
가족관계	2.73(.73)	2.83(.75)	-1.11	2.76(.74)
경제문제	2.82(.86)	2.96(.86)	-1.20	2.86(.86)
학교-가정갈등	2.49(.63)	2.52(.61)	- .30	2.50(.62)
대인관계	2.11(.77)	2.17(.66)	- .66	2.13(.74)
건강 및 상실	2.59(.86)	2.59(.93)	- .06	2.59(.88)
전체스트레스	2.53(.56)	2.60(.51)	- .97	2.55(.55)

편모의 전체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은 평균 2.86으로 중간(3.00)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별과 이혼집단간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영역 중 경제문제 영역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하지는 않으나 사별집단보다 이혼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관계, 직업-가정갈등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영역이 가장 낮은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공세권·조애저·허미영, 1995; 김선영, 1991; 김영희, 1996; 조희선, 1991; 박상희, 1993; Berman & Turk, 1981; Compass & Williams, 1991; Richards & Schmiege, 1993)과 일치되는 결과로서 편모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가장 큰 어려움이며 또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사별집단과 이혼집단의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 영역을 살펴본 결과 이혼집단이 사별집단보다 더 적은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지하며 대처에서도 더 소극적 대처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가족자원이나 대처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대처는 평균 2.99로 거의 중간(3.00)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편모와 유사하게 정서적 대처보다는 문제해결적 대처를 약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근거에 의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고 이혼집단과

사별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전체스트레스는 평균 2.55로 중간(3.00)보다 낮은 수준이며 모집단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대처와 마찬가지로 사별과 이혼집단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혼집단의 자녀가 사별집단의 자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모와 유사하게 경제문제영역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고 그 외 가족관계, 건강 및 상실, 학교-가정갈등,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특별히 이혼집단과 사별집단 자녀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모보다는 대처나 스트레스정도가 낮아 부부재의 영향 역시 적음을 알 수 있다.

2. 편모가족의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사별한 편모가족과 이별한 편모가족의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는 〈표 4〉 〈표 5〉와 같다. 홀로된 이유별로 분석결과가 달리 나타나 분리 해석하고자 한다.

사별한 편모가족에서 편모의 경우 가족자원과 문제해결적 대처간에 유의한 정적상관($r=.273$)이 나타났는데 가족자원이 많을수록 문제해결적 대처 역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자원과 전체대처간에도 낮은 정적 상관($r=.192$)이 있어 가족자원이

많은 경우 전체대처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가족자원간에는 높지는 않으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195$)가 나타났는데 자원이 많다고 인지하는 경우 스트레스는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대처와 스트레스간에는 정적 상관관계($r=.434$)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높은 스트레스상황에서 주로 정서적 대처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전체 대처와 스트레스간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스트레스와 대처간의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결과(Compass & Williams, 1990; Weinraub & Wolf, 1983)와 일치한다.

자녀집단도 편모와 유사하게 스트레스와 정서적 대처와 유의한 정적 상관($r=.346$)관계가 나타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주로 정서적 대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편모와 자녀 모두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대처에 있어 문제해결적 대처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혼한 편모의 경우 사별한 편모와 달리 가족자원과 대처영역간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가족자원을 스트레스대처에 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문제해결적 대처, 정서적 대처, 전체 대처 영역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대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인지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별한 편모와 다르게 문제해결적 대처와 스트레스간 유의한 정적 상관($r=.217$)을 보여 이혼한 편모가 스트레스상황에서 사별한 편모보다 더 다양한 면의 대처행동을 보인다고 해석된다.

자녀의 경우 정서적 대처와 스트레스간 유의한 정적 상관($r=.287$)이 나타났는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적 대처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사별한 편모가족과는 달리 이혼한 편모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자녀는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편모와 자녀간 상관을 보면 전체 대처영역을 제외

〈표 4〉 사별한 편모가족의 가족지원, 대처와 스트레스의 관계

		모					자녀		
		1	2	3	4	5	1	2	3
모	1. 가족자원								
	2. 정서적 대처	.022							
	3. 문제해결적 대처	.273***	.291***						
	4. 전체 대처	.192**	.779***	.827***					
	5. 스트레스	-.195**	.434***	.025	.272***				
자녀	1. 정서적 대처	-.023	.229**	.129	.219**	.093			
	2. 문제해결적 대처	.113	-.024	.197**	.115	.022	.035		
	3. 전체 대처	.061	.143	.226**	.233**	.080	.725***	.714***	
	4. 스트레스	-.182**	.256***	-.025	.128	.502***	.346***	.018	.255***

* $p < .05$ ** $p < .01$ *** $p < .001$

편모와 자녀간 변인별 상관관계를 보면 정서적 대처, 문제해결적 대처, 스트레스에서 높지는 않으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편모와 자녀간의 상호영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의 경우 편모와 자녀간의 상관성이 .502로 나타나 편모와 자녀가 어려움을 느끼는 시각이 유사함을 엿볼 수 있다.

한 정서적 대처, 문제해결적 대처, 스트레스가 높지는 않으나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를 통해 편모와 자녀간 상호관계가 발생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사별가족과 달리 모의 대처가 자녀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별한 경우와 동일하게 스트레스 영역에서 편모와 자녀의 상관($r=.462$)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긍정적, 부

〈표 5〉 이혼한 편모가족의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의 관계

		모					자녀		
		1	2	3	4	5	1	2	3
모	1. 가족자원								
	2. 정서적 대처	.166							
	3. 문제해결적 대처	.036	-.056						
	4. 전체 대처	.145	.673**	.701***					
	5. 스트레스	.024	.456***	.217*	.487***				
자녀	1. 정서적 대처	.096	.278**	-.249*	.014	.150			
	2. 문제해결적 대처	-0.73	-.412***	.339**	-.043	-.153	-.198		
	3. 전체 대처	.014	-.126	.088	-.024	-.011	.598***	.667***	
	4. 스트레스	-.087	.264*	.175	.318	.462***	.287***	-.057	.172

* $p < .05$ ** $p < .01$ *** $p < .001$

정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모자녀간의 상호 긴밀한 관계의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이나, 편모의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라면 자녀에게 이러한 스트레스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고 자녀의 경우에도 스트레스 상황이 편모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편모의 정서적 대처와 자녀의 문제해결적 대처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r = -.412$)이 나타나 이혼한 편모가족의 경우 모의 정서적 대처가 자녀의 문제해결적 대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엿볼 수 있다.

3. 관련변인과 가족자원이 대처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관련변인과 가족자원이 대처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6〉 〈표 7〉과 같다. 관련변인과 가족자원이 대처 및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각각 살펴보기 위해 유의한 관련변인 및 가족자원을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Durbin Waston 계수(DW)를 산출한 결과 1.882-2.075의 범위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편모가족의 관련변인과 가족자원이 대처에 미치는 영향력

편모가족의 관련변인과 가족자원이 대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편모의 경우 재정적 복지($\beta = -.19$, $p < .01$), 가족건강 I ($\beta = .20$, $p < .01$), 정서적 지지($\beta = .15$, $p < .05$)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정서적 대처를 8%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재정적 복지가 낮을수록, 가족건강 I (자존감과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정서적 지지가 많을수록 정서적 대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정서적 지지($\beta = .12$, $p < .05$)만 대처에 유의하게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정서적 지지가 많을수록 대처가 높게 나타났다.

편모가족의 관련변인과 가족자원이 문제해결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편모의 경우 홀로된 원인($\beta = -.13$, $p < .05$), 가족건강 I ($\beta = .13$, $p < .01$), 가족건강 II ($\beta = .25$, $p < .001$)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문제해결적 대처를 18%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사별보다는 이혼인 경우, 가족건강 I (자존감과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가족건강 II (숙달감과 성취)가 높을수록 문제해결적 대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친구관계만족도($\beta = .13$, $p < .05$), 친구수($\beta = .12$, $p < .05$)에서 문제해결적 대처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친구관계에 만족할수록, 친구수가 많을수록 문제해결적 대처가 높게 나타났다.

편모가족의 관련변인과 가족자원이 전체 대처에

〈표 6〉 편모가족의 관련변인과 가족지원이 대처에 미치는 영향력

	모			자녀		
	변인	B	β	변인	B	β
정서적 대 처	교육수준	-1.41	-.09	성별##	1.40	.08
	홀로된 원인#	.86	.05	모교육수준	-1.48	-.09
	친구수	-.77	-.05	홀로된 원인	1.57	.10
	친정식구수	1.77	-.05	친구관계만족도	1.81	.11
	재정적 복지	-2.91	-.19**	친구수	1.47	.09
	가족건강 I	2.77	.20**	학교성적만족도	1.58	.10
	가족건강 II	-1.25	-.12	재정적 복지	.78	.05
	정서적 지지	2.38	.15*	가족건강 I	-.86	-.05
				정서적 지지	1.90	.12*
		F	2.81**	F	1.99*	
	R ²	.08	R ²	.06		
문 제 해 결 적 대 처	교육수준	1.93	.11	성별##	-.07	-.01
	홀로된 원인#	-2.20	-.13*	모교육수준	.49	.03
	친구수	2.32	.14	홀로된 원인	-1.55	-.09
	친정식구수	-.08	-.01	친구관계만족도	2.10	.13*
	재정적 복지	.71	-.04	친구수	1.91	.12*
	가족건강 I	1.80	.13**	학교성적만족도	1.16	.07
	가족건강 II	3.70	.25***	재정적 복지	-.27	-.01
	정서적 지지	-1.78	-.11	가족건강 I	-.78	-.05
				정서적 지지	.55	.03
		F	7.48***	F	1.96*	
	R ²	.18	R ²	.06		
전 체 대 처	교육수준	.39	.02	성별##	.95	.06
	홀로된 원인#	-.92	-.05	모교육수준	-.70	-.04
	친구수	1.07	.07	홀로된 원인	.01	.00
	친정식구수	.71	.04	친구관계만족도	.23	.01
	재정적 복지	-2.36	-.15*	친구수	2.42	.15*
	가족건강 I	3.00	.21**	학교성적만족도	.29	.02
	가족건강 II	2.32	.16*	재정적 복지	.36	.03
	정서적 지지	.35	.02	가족건강 I	-1.28	-.07
				정서적 지지	1.75	.11
		F	5.18***	F	1.22*	
	R ²	.13	R ²	.04		

#가변수: 사별=0, 이혼=1 ##가변수: 남=0, 여=1

* p < .05 ** p < .01 *** p < .001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편모의 경우 재정적 복지 ($\beta = -.15, p < .05$), 가족건강 I ($\beta = .21, p < .01$), 가족건강 II ($\beta = .16, p < .05$)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전체대처를 13%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재정적 복지가 낮을수록, 가족건강 I (자존감과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가족건강 II (숙달감과 성취)가 높을

수록 전체대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친구수($\beta=.15, p<.05$)에서만 전체 대처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친구수가 많을수록 전체 대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편모의 경우에는 대처에 가족자원이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녀의 경우 대처에 친구수나 친구관계만족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모, 자녀의 정서적 대처, 자녀의 전체 대처 등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설명력이 낮은 것은 정서적 측면의 대처능력에 미치는 기타 변인들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존감, 성격특성 등과 같은 개인변인을 비롯한 기타 변인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보며 특히 자녀의 경우 가족이나 모와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청소년시기라는 점에서 환경변인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2) 관련변인과 가족자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모 교육수준($\beta=-.11, p<.05$), 친구관계만족도($\beta=-.26, p<.001$), 학교성적만족도($\beta=-.26, p<.001$) 등이 스트레스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스트레스를 22% 설명해주고 있다. 즉 모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친구관계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학교성적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조희선, 1991; Campbell & Moen, 1992)에서와 같이 교육수준은 직업종류와 소득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데 편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경제적 문제, 직장생활로 인한 가정생활 및 자녀와의 관계 등에서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재정적 여유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지할 때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나 편모의 경제적 문제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자녀의 경우 김영희(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데 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와의 유기적인 관계유지에 영향을 주는데 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의사소통

<표 7> 관련변인과 가족자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모			자녀		
	변인	B	β	변인	B	β
스트레스	교육수준	-2.83	-.17**	성별##	-1.73	-.10
	홀로된 원인#	-.84	-.05	모교육수준	-1.96	-.11*
	친정식구수	-1.45	-.09	부부재 원인	-.19	-.01
	사회단체수	-.91	-.05	친구관계만족도	-4.52	-.26***
	재정적 복지	-2.55	-.16*	친구수	1.73	.10
	가족건강 I	-1.61	-.10	학교성적만족도	-4.64	-.26***
				재정적 복지	-1.52	-.09
				가족건강 II	-1.74	-.10
	F	5.58***	F	9.63***		
	R ²	.11	R ²	.22		

#가변수: 사별=0, 이혼=1 ##가변수: 남=0, 여=1

* p < .05 ** p < .01 *** p < .001

편모가족의 관련변인, 가족자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편모의 경우 교육수준($\beta=-.17, p<.01$)과 재정적 복지($\beta=-.16, p<.05$)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스트레스를 11% 설명해 주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재정적 복지

능력과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하므로 자녀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학교성적과 친구관계의 만족도는 청소년기 자녀의 스트레스에 밀접한 영향요인으로 청소년기의 학업성취 정도와 친구선호도가 편모자녀에게도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V. 요약 및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모가족의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을 보면 편모의 경우 전체 가족자원은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물질적 지지, 가족건강 I, 재정적 복지, 정서적 지지, 가족건강 II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처는 중간점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며 문제해결적 대처가 정서적 대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스트레스는 중간점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경제문제, 가족관계, 가족-직업갈등, 대인관계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자원과 대처에서 사별집단과 이혼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두 이혼집단보다 사별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대처는 거의 중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는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사별집단과 이혼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편모가족의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보면 사별한 편모의 경우 가족자원과 문제해결적 대처, 전체 대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가족자원과 스트레스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정서적 대처, 전체 대처와 스트레스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혼한 편모의 경우 모든 대처 영역과 스트레스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편모와 자녀간 변인별 상관이 높지는 않으나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긴밀한 상호관계를 짐작케 한다.

셋째, 편모가족의 관련변인과 가족자원이 정서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편모의 경우 재정적 복지, 가족건강 I, 정서적 지지 등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 8% 설명해 주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 정서적 지지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문제해결적 대처에는 편모의 경우 홀로된 원인, 가족건강 I, 가족건강 II 등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 18% 설명해 주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 친구관계만족도, 친구수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 대처에는 편모의 경우 재정적 복지, 가족건강 I, 가족건강 II 등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 13% 설명해 주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 친구수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편모가족의 관련변인, 가족자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편모의 경우 교육수준, 재정적 복지가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 11% 설명해 주고 있다. 자녀의 경우 모 교육수준, 친구관계만족도, 학교성적만족도 등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 22% 설명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모가족의 자원으로서 가족건강 II(숙달감과 성취)와 정서적 지지가 취약하여 개인적 사회정책적으로 이 부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겠고 특히 이혼이 급증하는 추세로 본다면 이혼가족의 가족자원과 대처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별과 이혼집단을 비교 분석해 보았을 때 편모의 경우 가족자원과 대처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자녀의 경우 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서 자녀에게는 부부재의 원인이 더이상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까지도 사별보다는 이혼가족에 대한 편견의 시선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더 이상 편모자녀로 하여금 부부재에 대한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사회적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편모가족의 가족자원, 대처, 스트레스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사별한 편모의 경우 이혼한 편모와 달리 가족자원이 대처나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자원을 잘 활용하는 경우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면 대처에서는 사별한 편모보다는 이혼한 편모가 다양한 대처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별과 이혼집단의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편모와 자녀의 유의한 스트레스상관이 나타났으나 이혼가족 자녀의 경우 대처와 스트레스상관이 사별가족의 경우보다 높지 않아 이들 가족의 스트레스감소를 위해 대처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편모의 경우 다른 변인보다는 가족자원이 대처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편모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재정적인

향상을 포함하여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존감이나 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주위의 지지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녀의 경우에는 가족자원의 영향이 적으므로 이를 위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공세권·조애저·허미영(1995). 가족결혼의 유형별 특성과 가족정책의 접근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5-03.
- 2) 김선영(1991). 미망인의 가족스트레스와 적응과정 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3) 김영희(1995). 편모가정내의 자녀적응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 4)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박사논문.
- 5) 김인숙(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 박사논문.
- 6) 김정옥(1993). 이혼의 사회적 배경과 이혼원인의 이론적 고찰.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15-40.
- 7) 박상희(1993). 저소득층 모자가족의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 8) 신화용·조병은(1996). 편부모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늘어나는 편부모가정 '96 가정 복지세미나, 5-31.
- 9) 안명자(1994). 친족지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10) 장재송(1991). 고등학생의 입시스트레스와 가족 기능간의 관계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11) 정현숙(1993). 이혼과 자녀문제의 이론적 고찰.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105-154.
- 12) 정현숙·서동인(1996). 편부모 가정의 자녀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늘어나는 편부모가정 '96 가정 복지세미나, 33-64.
- 13)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 14) 통계청(1995). 한국의 사회지표.
- 15) 통계청(1996). 인구동태통계연보.
- 16) 한경혜(1993).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79-104.
- 17) 현운강·이순덕(1992). 양친가정과 결손가정자녀의 스트레스인지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3(1), 131-146.
- 18) Amato, P.(1987). Family processes in one-parent, stepparent, and intact families: The child's point of view. JMF, 49, 327-337.
- 19) Amato, P.R.(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is, and empirical support. JMF, 55(1), 23-38.
- 20) Amato, P.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26-46.
- 21) Amato, P.R. & Patridge, S.(1987). Widows and divorces with dependent children: Material, personal, family, and social well-being. FR, 36(3), 316-320.
- 22) Anderson, T.B.(1984). Widowed as a life transition: Its impact on kinship ties. JMF, Feb, 105-113.
- 23) Avshalom, C. & Elder, H.(1988). Emergent family patterns: The intergenerational construction of problem behavior and relationship. N.Y: Oxford University Press.
- 24) Bahr, S.J.(1982). The pains and joys of divorce: A survey of Mormons. Family Perspective, 191-200.
- 25) Balkwell, C.(1981). Transition to widowhood: A review of the literature. FR, 30, 117-127.
- 26) Berman, H.W. & Turk, C.D.(1981). Adaptation to divorce: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JMF, Feb, 179-189.
- 27) Billings, A.G. & Moos, R.H.(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PSP, 46(4), 877-891.
- 28) Bursik, K.(1991). Correlates of women adjustment during the separation and divorce process. Jnl. of Divorce, 15, 137-161.
- 29) Compass, B.E. & Williams, R.A.(1990). Stress,

- coping, adjustment in mothers and young adolescents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American Jnl. of Community Psychology* Aug, 18(4), 525-545.
- 30) Campbell, M.L. & Moen, P.(1992). Job-family role strains among employed single mothers of preschoolers. *FR*, 41, 205-211.
- 31) Clark, P.G., Siviski, R.W. & Weiner, R.(1986). Coping strategies of widowers in the first year. *FR*, 35, 425-430.
- 32) Colletta, N.D.(1979). Support systems after divorce: Incidence and impact. *JMF*, 41, 837-846.
- 33) Deacon, R., & Firebaugh, F.(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2nd ed.). Boston: Allyn & Bacon.
- 34) Deborah, D.(1991).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JMF*, 53(3), 573-584.
- 35) Fine, A.M., Mckenry, C.P., Brenda, W.D. & Voydanoff, P.(1992). Perceived adjustment of parents and children: Variations by family structure, race and gender. *JMF*, 54(1), 118-127.
- 36) Folkman, S., Lazarus, R.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J.(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PSP*, 50(5), 992-1003.
- 37) Greene, R.W. & Feld, S.(1989). Social support coverage and the well-being of elderly widows and married women. *Jnl. of Family issues*, 10(1), 33-52.
- 38) Gringlas, M. & Weinraub, M.(1995). The more things change. Single parenting revisited. *Jnl. of Family issues*, 16(1), 29-52.
- 39) Hanson, S.M.(1986). Healthy single parent families. *FR*, 35(1), 125-132.
- 40) Hetherington, M. & Anderson, E.(1989). Marital transition: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303-312.
- 41) Hill, R.(1971). *Families under stres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 42) Hyman, R. & Wog, D.(1982). Stressful life events and illness onset: A review of crucial variable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5(1), 155-183.
- 43) Jayakody, R., Chatters, L.M. & Taylor, R.J.(1993). Family support to single and married African-American mothers: The provision of financial, emotional, and child care assistance. *JMF*, 55(2), 261-276.
- 44) John, G. & Helen, C.(1985). Divorce family health and child adjustment. *FR*, 34(1), 35-41.
- 45) Katz, R. & Pesach, N.(1985). Adjustment to divorce in Israel: A comparison between divorced men and women. *JMF*, Aug, 765-771.
- 46) Kazarus, R.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s Publing Co.
- 47) Lopata, H.Z.(1978). Contributions of extended families to the support systems of Metropolitan area widows: Limitations of the modified kin network. *JMF*, May, 355-364.
- 48) Marks, N.F.(1995). Midlife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with adult childr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nl. of Family issues*, 16(1), 5-28.
- 49) McCubbin, H.I.(1981).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 St. Paul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Minnesota.
- 50) McCubbin, H.I. & Comeau, J.K.(1987). *FIRM: 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 In H.I. McCubbin & A. I. Thompson(eds.), *Family assessment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pp. 145-160).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 51) McLanahan, S.S.(1983). Family structure and stress: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two-parent and female-headed families. *JMF*, 45, 347-357.
- 52) McLanahan, S. & Booth, K.(1989).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MF*, 51(3), 557-580.

- 53) O'Bryant, S.(1988). Sibling support and older widows' well-being. *JMF*, 50(1), 173-183.
- 54) Park, C.M. & Weiss, R.S.(1983). *Recovery from bereavement*. N.Y. Basic Books.
- 55) Parker, L.(1994). The role of workplace support in facilitating self-sufficiency among single mothers on welfare. *FR*, 43(2), 168-173.
- 56) Richards, L. & Schmiede, C.(1993).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parent families Implication for practice and policy. *FR*, 42, 277-285.
- 57) Spicer, J.W. & Hampe, G.D.(1975). Kinship interaction after divorce. *JMF*, 37(1), 113-119.
- 58) Taylor, R.D. & Roberts, D.(1995). Kinship support and maternal and adolscent well-being in economically disadvantaged African-American families. *Child Dev.* 66, 1585-1597.
- 59) Tietjen, A.M.(1985). The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of married and single mothers in Sweden. *JMF*, May, 489-496.
- 60) Umberson, D.(1989). Relationship with children: Explaining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MF*, 50(4), 999-1012.
- 61) Wallerstein, J., Corbin, S., & Lewis, J.(1988). Child of divorce: A ten year study. In E.M. Hetherington & J. Arasteh(Eds.), *Impact of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stepparenting on children*(pp. 198-214). Hillsdale, NJ: Erlbaum.
- 62) Wallerstein, J. & Kelly, J.(1980). *Surviving the breakup*. NY: basic Books.
- 63) Webster-Stratton, C.(1989). The relationship of marital support, conflict, and divorce to parent perceptions, behaviors, and childhood conduct problems. *JMF*, 51(2), 417-430.
- 64) Weiraub, M. & Wolf, B.M.(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s on mother-child interaction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Child Dev.* 54, 1297-1311.
- 65) Weiss, R.S.(1979). Growing up a little faster: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in a single-parent household. *Jnl. of Social Issues*, 35, 97-111.
- 66) White, L. & Edwards, J. N.(1990). Emptying the nest and parental well-being: an analysis of national panel dat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235-242.
- 67) White, L.(1994). Growing up with single parents and stepparents: Long-term effects on family solidarity. *JMF*, 56(4), 935-948.
- 68) Zimmerman, M.A., Salem, D.A. & Maton, K.I. (1995). Family structure and psychosocial correlates among urban African-American adolescent males. *Child Dev.* 66, 1598-1613.